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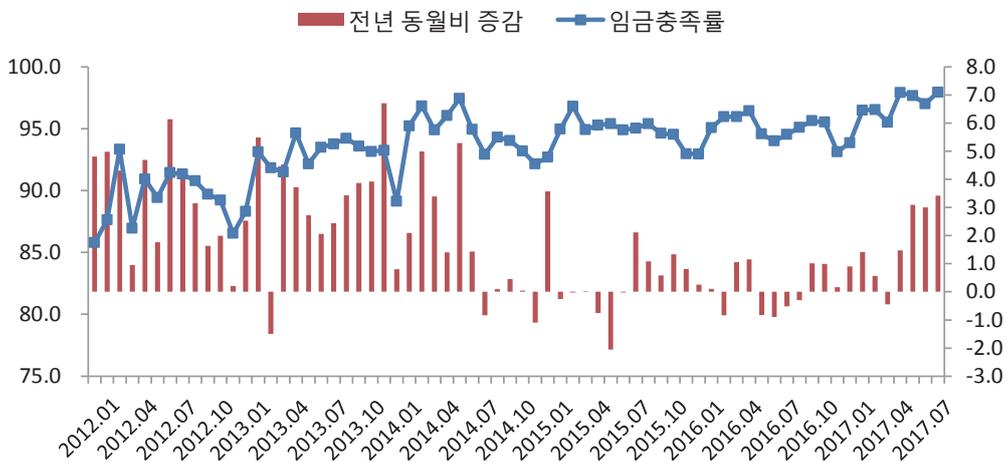
워크넷 구인구직DB를 이용한 7~8월 임금 동향

박세정 (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)

- 2017년 8월 신규구인인원은 246천 명, 신규구직건수는 399천 건, 평균 제시임금은 185.4만 원, 평균 희망임금은 189.3만 원으로 전체 임금충족률은 97.9%로 나타남

〈임금충족률 추이〉

(단위: %)



주 : 1) 임금충족률=(평균 제시임금/평균 희망임금)×1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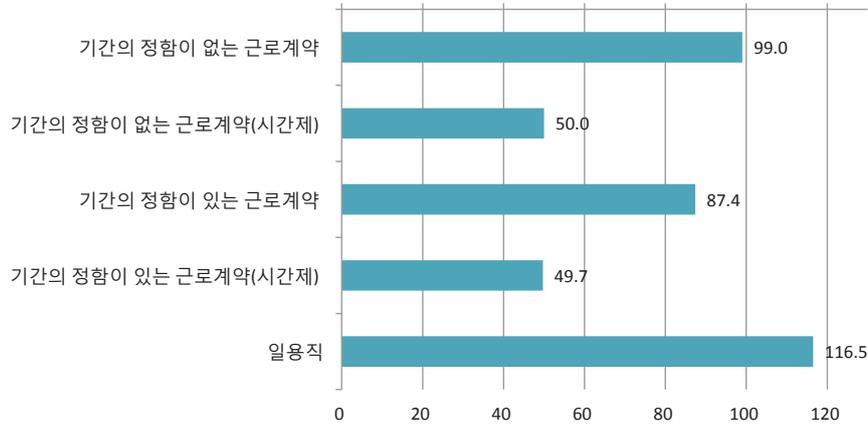
2) 임금에서 '분류불능(응답자오류) 및 특이값 제외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워크넷 구인구직DB

- 고용형태별 임금충족률은 '일용직' 상태에서 116.5%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, '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(시간제)' 상태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. 시간제 근로형태의 낮은 임금충족률은 8월 시간제 근로형태에 대한 기업의 낮은 제시임금에 기인

〈고용형태별 임금충족률〉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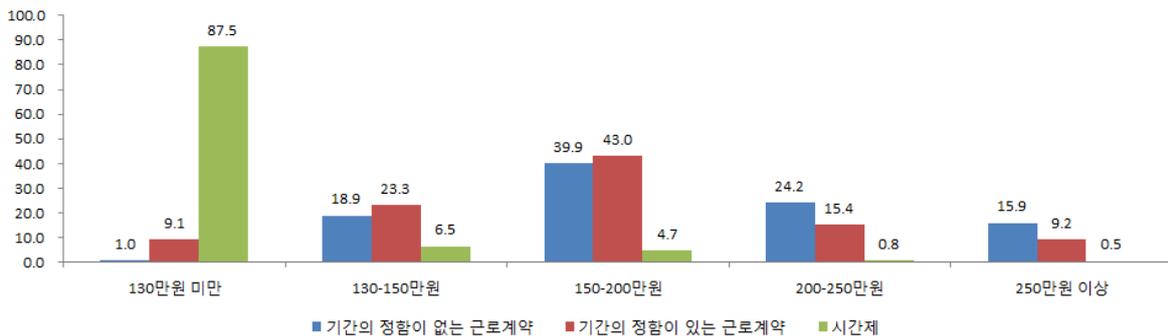


주 : 1) 임금충족률=(평균 제시임금/평균 희망임금)×100
 2) 임금에서 '분류불능'(응답자오류) 및 특이값 제외
 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워크넷 구인구직DB

- 8월 고용형태별 제시임금대 비중을 보면, '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' 형태의 경우 130-150만 원 과 200-250만 원 구간의 구인수요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, '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'의 경우 130-150만 원의 낮은 임금대에서 구인수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
 - 대부분의 구인업체에서 시간제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130만 원 미만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고 있음

〈제시임금대별 구인수요 비중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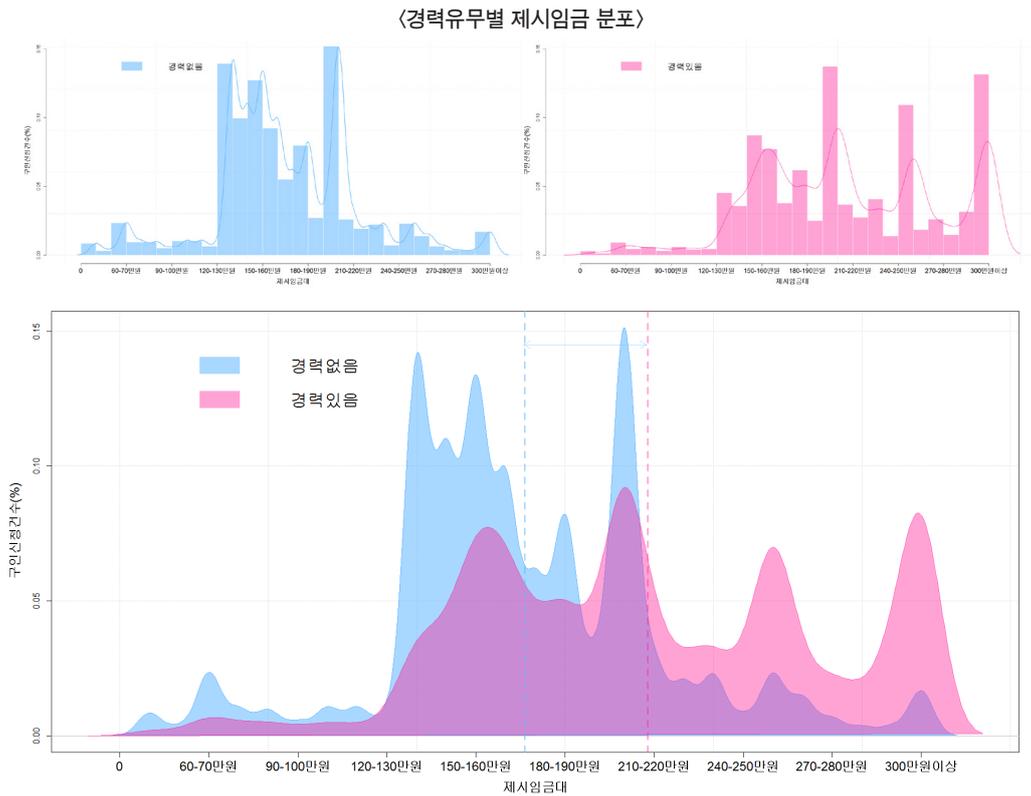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주 : 1) 임금대별 구인신청건수의 비중임
 2) 제시'월'임금임
 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워크넷 구인구직DB

2017년 7월 기준 속성별 제시임금, 희망임금 분포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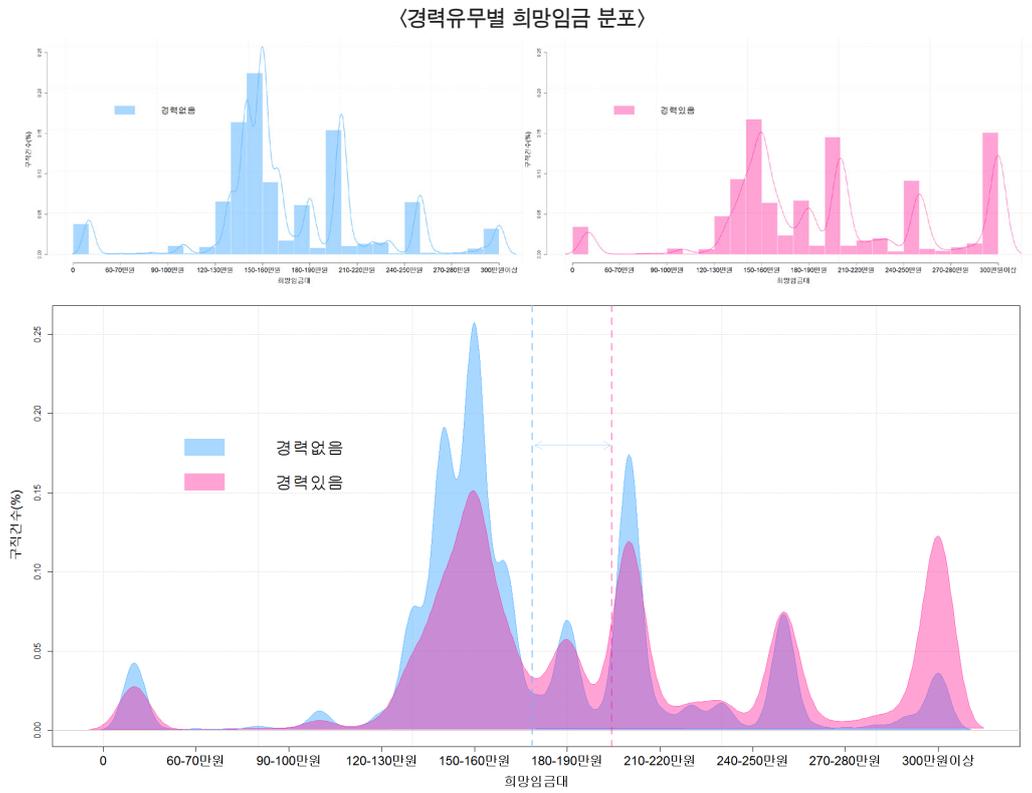
- 임금대별 구인신청건수 비율을 통해 본 제시임금 분포는 경력유무별로 다소 차이를 보임
 - 신규직에 대해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은 주로 130~180만 원대 등 200만 원 미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, 경력직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임금대에 다수 분포
 - 그림의 실선으로 나타난 분포 평균을 보면 신규직에 대한 제시임금 분포 평균은 170만 원대, 경력직에 대한 제시임금 분포 평균은 210만 원 이상에 위치



주 : 1) 2017년 7월 기준 데이터임
 2) 제시'월'임금임
 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워크넷 구인구직DB

■ 임금대별 구직건수 비율을 통해 본 희망임금 분포는 경력유무별로 차이를 보임

- 유경력자의 경우 250만 원 이상의 희망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가운데 신규구직자의 희망임금 분포 평균은 170만 원대, 경력구직자의 희망임금 분포 평균은 20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남



주 : 1) 2017년 7월 기준 데이터임
 2) 희망'월'임금임
 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, 워크넷 구인구직DB